

01 교회소식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생명의 말씀과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준 손수건을 통한 권능의 역사로 충만했던 베네수엘라 5차 선교 소식.

02 생명의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시리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하게 된다.

03 선교

“주님과 교제하는 이 행복~”

온두라스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님 사랑을 깨닫고 신앙의 행복을 찾아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과 지성전을 이루게 된 소식.

04 간증

늘 함께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변화되기 위해 힘쓰니 소원까지 응답받은 몰도바 알렉산드로 성도와 화재 현장에서 보호받은 박기성 집사 간증.

# 만민뉴스

제910호 2019년 12월 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주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말씀과 표적, 사모합니다!”

### 베네수엘라 5차 선교, 120여 개 협력교회 가입



남미 베네수엘라 5차 선교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장정연 목사(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를 강사로 진행되었다. 이번 선교는 지난 9월에 베네수엘라 4차 선교 시 말씀에 은혜받고 권능의 역사를 목도한 엘리세오 목사를 중심으로 초교파적으로 연합하여 초청함으로 이뤄진 것이다.

첫 일정으로 11월 29일, 주의 종 및 일꾼 세미나가 바르끼시메또시 사막의 샘물교회에서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권능 사역이 담긴 영상을 시청한 후, 강사 장정연 목사는 ‘성령’(눅 3:16)을 주제로 세미나를 인도했는데 참석자들은 말씀을 경청하며 여러 차례 박수로 화답했다. 이어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만성 하악골 탈골, 경추 통증, 유방 통증 등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호르헤 빠체코 담임 목사는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는 사역에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했다. 이날 120여 개 교회가 만민의 사역과 함께

하길 희망하며 협력교회로 가입했다.

한편, 세미나 봉사자 중 한 성도는 “2006년 미국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 시 그곳에 참석한 가족이 전화로 성회를 중계하여 이곳에서 기도 받고 안구암을 치료받았습니다”라며 기쁘게 간증했다. 이날 밤, 장 목사는 LBD TV 인터뷰에 응하여 만민의 사역을 소개했다.

11월 30일에는 ‘에스파디오 데 12 데 옥뚜브레’ 야구장에서 1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손수건 집회가 열렸다. 장 목사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시는 이유’(행 4:12)에 대해 증거한 뒤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주었다. 그 결과 시력이 회복되고, 걷지 못하던 아이가 걷게 되며, 각색 질병이 치료되는 등 권능의 역사를 목도하며 참석자들은 크게 영광을 돌렸다.

12월 1일 주일에는 사막의 샘물교회, 피난처교회, 하나님의 은혜교회 세 곳에서 각각 집회가 열렸으며 영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에 목회자와 성도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았다. 이번 세미나와 집회를 준비한 목회자들은 “만민은 성경적인 복음을 전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한다”라고 말하며 다시 와서 집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했다.

### 제22회 사랑의 김장 나누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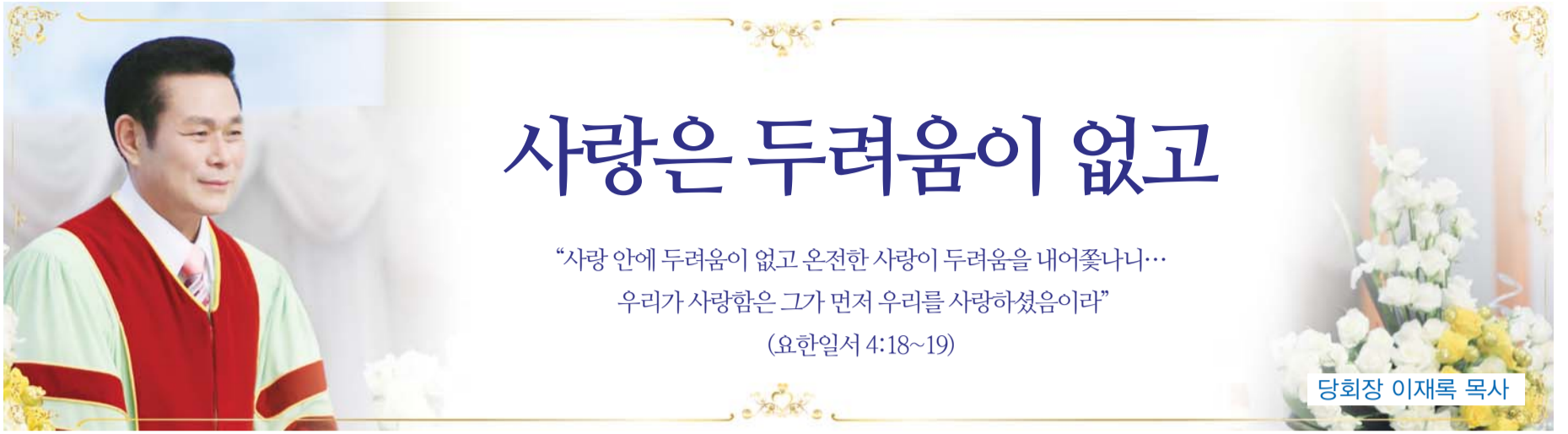
지난 11월 19일부터 20일까지 여선교회총연합회 주관으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가 진행되었다.

올해로 22회를 맞은 이 행사에 여선교회와 중국교구 성도들, 교회 상근 직원들이 사랑의 마음을 모았다.

완성된 김장김치는 교회 내 구제 가정 외에도 신대방 2동 주민센터, 구로구립 장애인직업재활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었다. 신대방 2동 안희정 부녀회장은 “만민중앙교회 김장은 직접

성도님들이 정성껏 담은 데다 맛도 아주 좋고 양도 푸짐해서 감사합니다. 매월 쌀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했다.

올해에도 2,200여 포기 배추는 김말린 권사(69세)가 손자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찬조했다. 김 권사의 손자(이재우, 15세)는 생후 8개월 때 사고로 튀김기름이 펄펄 끓는 프라이팬에 얼굴이 잡겨 큰 화상을 입었으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신속히 치료받아 흉터 없이 깨끗한 피부가 되었다.



# 사랑은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18~19)

당회장 이재록 목사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저주를 받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셨지요.

더구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해 핏빛 땀과 굶주림을 겪으시며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마침내는 피조물들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셔야 했지요.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어도 막상 엄청난 고난 앞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된다면 그것은 아직 마음에 두려움이 남아 있다는 증거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해도 결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는 이유

### 1) 두려움은 범죄함으로 인해 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인류 역사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그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로 창설해 주신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각종 나무 실과를 먹으며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 먹은 그 순간부터 비극은 시작되었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죄로 인한 수치감으로 인해 자기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하며 나뭇잎으로 가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기에 발가벗겨 놓아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도 수치감보다는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담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죄가 들어오니 이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이런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이 찾으시자 그는 “내가 벗

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하지요. 죄를 짓고 나니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서 수고하며 고달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후 두려움이 임한 예로는 가인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좇아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만을 기뻐 받으시자 가인은 시기와 미움으로 인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맙니다. 이로 인해 가인은 땅에서 피해 유리하는 자가 되고 말았지요. 이때 두려워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창 4:13~14) 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인에게는 죄의 값이 사망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므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 2)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두려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베풀어지는 열 재앙을 보았습니다. 또 지팡이를 내미니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을 치니 물이 나오는 역사도 체험했지요. 험난한 광야 길에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았으며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자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를 못합니다(출 20장). 그리고 모세를 향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말하지요. 그런데 이런 백성과는 달리 모세는 두려움에 떠는 백성을 진정시키며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의 사이에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한 반면 모세는 하나님을 정녕 마음에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고, 모

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범죄한 백성이 진멸당할 위기에 놓이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닦아 사랑을 이룬 모세였기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와는 이상과 꿈 가운데 만나 주셨으나 모세와는 친히 대면해 말씀해 주셨지요. 모세가 이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고 온 집에 충성했기 때문입니다(민 12장).

### 3)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그만큼 알지 못한다는 뜻인데, 이러한 예로는 욥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늘 성결케 했으며, 잔칫날이 지나면 혹시 자녀들이 잔치를 즐기는 중에 죄를 범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 하여 자녀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러나 욥의 행함은 하나님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재앙을 만난 후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욥 3:25)라고 고백하지요. 곧 축복을 넘치게 받던 중에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혹 내게 재앙을 주시지는 않을까’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욥 2:10)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이 아무에게나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욥의 말이 옳다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평강 가운데 그분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이처럼 욥은 진리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기는 했지만 직접 체험한 바가 없었기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오소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녀오실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사랑을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며 두려워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읊을 참된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연단을 허락하셨습니다. 결국 연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체험하게 되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욥 42:5)라고 고백하지요. 이후 읊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감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은 성경 66권 말씀을 지켜 행하고 사랑으로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진정 사랑한다면 그가 부탁하는 것은 무엇 이든 들어 주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것이라 해도 기쁜 마

음으로 해 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쁩니다.

비록 모든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깨닫는 만큼 행해 나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행함을 보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함과 확신을 주시지요. 곧 진정 마음으로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심으로 진리대로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 나가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리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결국은 생명까지도 내어 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1~22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진리 안

에 거할 때 담대히 구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지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돌아갈 본향인 아름다운 천국이 있으니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과 사랑을 나눌 것을 바라본다면 현재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맞이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두려움이 없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웠던 제 삶이  
응답과 축복의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블랑카 에스텔라 플라로스 오비에도 성도**  
(45세,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저는 오랫동안 부적을 가지고 다니며, 그것을 통해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엄청난 재정적 문제뿐 아니라, 건강과 가족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버겁게 느껴졌던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요. 이후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부적들도 버렸습니다.

그러던 2010년 어느 날, 한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감사님을 통해 한국의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권능의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저는 SNS(소셜미디어)에 있는 만민의 형제자매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통해 주님의 사랑 깨닫고**

어느 날, SNS에서 만난 그들 중 하나가 제게 만민중앙교회 인터넷 예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예배에 함께하며 은혜를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2015년에는 만민중앙교회에서 감사님이 온두라스에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때 소화기관의 문제를 치료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왼쪽 복부에 혹 같은 것이 만져졌고 극심한 통증과 어지럼증, 구토 증세까지 있었지만, 감사 이수진 목사님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를 받은 뒤 깨끗이 치료된 것입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저는 인터넷을 통해 만민의 성도로 등록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니 제 마음에 평안을 얻게 되었지요. 늘 저를 짓눌렀던 과거 우상숭배로 인한 죄책감을 내려놓고, 용서받았다는 안도감과 새로운 삶의 기회와 함께 마음을 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불임이던 여동생이 잉태의 축복을 받는 등 응답 넘쳐**

2017년, 저를 비롯해 당회장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서로

의 집에서 돌아가며 주일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8년 3월에는 장소를 따로 얻어 지성전이 세워졌고, 콜롬비아만민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주일예배와 각종 예배에 참석하며 매일 다니엘철야 기도회에도 함께하고 있지요. 이로써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자 힘쓰니 치료와 응답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까지 받고 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지난 6월 말, 갑자기 극심한 척추 통증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었으나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받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또한 가정에 재정적인 위기로 집을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민중앙교회에 요청해 한국에 계신 당회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에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올해 8월에는 만민하계수련회에 생방송으로 참석해 기도 받을 때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심각한 알레르기성 기침과 두통을 치료받기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뿐 아닙니다. 제 여동생은 불임으로 여러 차례 인공수정을 시도해 보았지만 실패했고, 게다가 나팔관 기능 저하와 난소 종양까지 생겨 임신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런 동생이 너무 안쓰러워 만민중앙교회에 당회장님의 기도요청을 보냈습니다.

몇 달 후 여동생이 임신했다는 행복한 소식을 듣게 되었지요. 아이는 건강하게 태어났고 지금은 두 살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도 곧 출산할 예정입니다.

사랑과 권능, 은혜로 가득한 만민교회로 이끌어 주셔서 예전에는 알 수 없던 참된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주님께서 허리디스크와 치질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알렉산드로 따나세예프 성도 (42세, 몰도바만민교회)

저는 2010년부터 방송을 통해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뒤로 계속해서 인터넷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으며 은혜받았습니다.

그러던 2017년 몰도바만민교회 소식을 듣고 아내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다녔던 곳처럼 전혀 낯설지 않았고, 그날 들은 설교도 저를 위한 말씀같이 달게 느껴졌습니다.

이후 저희는 몰도바만민교회에 출석하면서 신앙의 갈급함이 점차 해소되었는데, 제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서비스 공장에서 근무하는데 오래 전부터 심각한 허리 통증으로 일하기가 너무 힘들었지요.

의사는 저의 척추 윗부분에 디스크가 있고 양쪽으로 벌어진 척추로 인해서 제 신경을 압박하고 건드려 통증이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받기 위

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 몸은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저녁이 되면 너무 피곤해 높고만 싶었습니다. 통증은 계속돼 잠자리에 누워도 이리저리 뒤척이며 고통과 싸워야 했고, 이런 몸 상태로 일터에 나가면 상사는 저를 굶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지요. 다른 직장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어린 두 자녀가 있기에 일을 계속 해야만 했습니다.



치료받는 것은 제게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저는 응답받고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고자 말씀을 통해 제 안에 발견되는 버려야 할 것들, 부족한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변화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주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 9월, 하나님께서 만민중앙교회 선교

팀을 몰도바에 보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저는 치질까지 생겨 수술 날짜를 잡은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허리디스크가 가장 큰 기도제목이었기에 치질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강사 이수진 목사님이 제 허리에 기도해 주신 뒤 놀라운 일이 있어났습니다. 허리 통증이 사라져 평소와 달리 자리에서 가볍게 일어나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제 아들의 손을 잡고 돌고 점프하며 움직여 보아도 전혀 통증이 없었지요. 더 신기한 것은 치질까지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 삶에 늘 함께하시며 영혼이 잘될수록 범사에 축복하셔서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화재 현장에서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무실 인테리어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지난 5월, 일꾼들과 작업 중 자재를 구입하러 나왔는데 ‘작업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즉시 현장에 가보니, 소방차 2대와 경찰차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업체 직원들은 복도에 대피해 있었고, 소방관들과 저희 쪽 일꾼들은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천장 텍스 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복도 한쪽으로 가서 휴대폰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ARS(자동응답서비스) 기도를 받았습니. 그 뒤 다시 현장에 돌아가 보니 감사하게도 불길

받았을 때는 진화되어 소방관들이 남은 연기를 복도로 빼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한 분이며, 당회장의 기도를 보장하시는 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배관 절단 작업 중 천장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이었는데, 당시 벽에는 인화성이 강한 스펀지 방음재가 붙어 있었고 화재가 난 창문 밑에는 기름통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또한 천정 내부에



박기성 집사 (64세, 2대대 13교구)

는 불에 잘 타는 소재의 자재와 전기선들이 많이 깔려 있어 큰 화재로 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우리와 비슷한 현장을 맡은 업체에서는 화재로 전소돼 큰 피해를 본 일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온전히 보호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화재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니, 다른 곳은 불에 타 새카맣게 그을려 있었으나 저희가 시공한 냉난방 배관 설비는

아무 이상이 없었고, 첨단 장비가 있는 천정 쪽으로는 불길 하나 번지지 않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소방관들과 현장에 있는 모든 분이 “큰 화재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도로 끝난 것은 하늘이 도왔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했지요. 또 전후 상황을 들으신 업체 사장님은 오히려 “수고했다” 하시며, 추가로 일을 더 맡겨 주셨습니다.

30년 전 만민의 양 떼가 돼 생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확신하게 된 저는 손목 골절을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받는 체험을 하며 현재 조장으로, 아내를 지역장으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구원해 주시고 불경기와 상관없이 사업터에도 일감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례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사천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사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들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도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아셀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